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과 시사점

전민규, Ph.D. 3276-6229
min.jun@truefriend.com

진은정, 3276-6231
eunjung.jin@truefriend.com

이채원, 3276-5150
chaewon.lee@truefriend.com

- 언론은 정부가 10조원 추경 편성할 것으로 보도,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
- 기존 예산으로 내수 부양에 미흡, 수출 여건 개선도 어려워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
-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최대 0.6%p의 성장률 상승 효과 있으나, 실제로는 변수가 많음

추경 편성, 결정된 바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문제일 듯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당사는 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2013년 정부 예산도 소비를 0.2%p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3월 4일자 산업분석 리포트, '소비 환경 변화와 성장하는 기업'). 그러나 그 정도로는 내수 부양에 미흡하다. 특히 미국은 자국내 제조업을 육성해 일 자리를 만들 의도를 갖고 있어, 향후 한국은 수출 확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정책 기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시기의 문제일 뿐 추경 편성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05년 이후 연도별 정부 예산과 추경 추이

연도	당초 예산 (조원)	추경 (조원)	경제성장률 (%)	주요 사용처
2005	195.0	4.9	4.0	주한미군기지이전, 기초생계급여 부족분, 세수부족 경정
2006	202.1	2.2	5.2	재해복구비, 지방교부금 정산
2007	201.0	0.0	5.1	
2008	219.9	4.6	2.3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2009	248.0	28.4	0.3	민생안정 위한 일자리
2010	255.3	0.0	6.3	
2011	264.1	0.0	3.6	
2012	282.7	0.0	2.0	
2013	298.4	10.0	-	

주: 2009년 추경 규모는 기금운용계획변경문 10.5조원이 포함된 금액임
2013년 추경 규모는 언론 보도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추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것이 문제

추경예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첫째, 추경 중에서 실제로 정부의 세출 예산에 투입되는 비율이 중요하다. 만약 추경 중 일부가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만큼 효과는 줄어든다. 2009년 추경 편성 당시에는 28.4조원의 추경 중에서 세출 증액으로 사용된 것은 17.2조원이며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11.2조원이었다. 둘째, 추경을 어떤 분야에 집행하는 것이 소비나 성장에 미칠 영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즉시 소비로 활용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효과가 클 것이다. 셋째, 추경을 집행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도 금리가 상승한다면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성장률 최대 0.6%p 상승 효과 있으나,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듯

추경이 1) 전액 세출 예산에 투입되고, 2) 그 중에서도 일자리 만들기 등에 사용되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3)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이다. 한국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증

가할 경우, 증가 금액의 약 80%가 국내총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10조원의 추경은 최대 약 8조원의 국내총생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0.6%p 높이는 효과가 된다. 다만, 이는 모든 효과가 가장 최대한 발휘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추경 효과의 상한선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일자리가 정부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추경에 의해 늘어난 소득을 가계가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으로 활용하거나,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면 성장을 증대 효과는 차감될 것이다.